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3월 16일
(월요일)

동북일보 4면

수유3동 공영주차장 신설 필요성 제기

유인애 의원
(새누리, 번1·2동, 수유2·3동)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은 수유3동 공영주차장 신설이 필요하다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언을 하였다.

유 의원은 “도시지역의 인구 밀집과 자동차 보유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주차부족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부천에서 일어난 자매 살인사건도 주차문제 시비로 발생한 사건으로 매년 주차구역이 부족하여 주차문제도 인해 발생한 사회적인 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니 문제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고 말했다.

강북구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5년 3월 현재 총 7만 4959대(관용차량 273대, 자가용 6만9885대, 영업용 차량 4801대)이며, 강북구의 주차가능 주차면수 현황은 대략 총 8만 3700여 면으로 강북구의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주차가능 주차면수 현황은 넉넉한 상황이다.



▲ 유인애 의원.

그러나 수유3동 지역은 민원이 잦은 강북구청의 직할동이며, 수유역이 위치한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역세권 지역으로 다른 지역보다 주차구역 확보가 넉넉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이 강북구 관내 공영주차장 총 33개소(공단직영: 주차장 25개소,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7개소) 중 주차면수가 45면인 소규모 주차장 시범 공영주차장 1개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거주자

우선주차제도의 경우 시행 초기인 2004년에 비해 신축 건물의 증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지역주민의 불편민원 등으로 인해 2015년 현재 주차구획수가 1558면 감소되어 더욱 주차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며, 수유3동의 경우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대기자 수가 강북구 내에서 가장 많은 710여명으로 주차부족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발언하였다.

유인애 의원은 “우리 강북구에서는 수유3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열악한 강북구의 재정현편을 고려해 볼 때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사업진행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주차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필요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유3동 지역에 공영주차장 신설은 장기적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며, 집행부에서 신중한 검토 후 긍정적인 답변을 해달라고 당부 하였다.

〈박은주 기자 jeji1718@naver.com〉

서울포스트 5면

유인애 의원...수유3동 공영주차장 신설해야



강북구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이 지역구인 유인애 구의원이 지난 10일 제18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수유3동 공영주차장 신설’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유인애 의원은 강북구의 주차가능 주차면수 현황은 대략 총 8만 3700여 면으로 강북

구의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주차가능 주차면수 현황은 넉넉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유3동 지역은 민원이 잦은 강북구청의 직할동이며 수유역이 위치한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역세권 지역으로 다른 지역보다 주차구역 확보가 넉넉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이 강북구 관내 공영주차장 총 33개소(공단직영: 주차장 25개소,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7개소) 중 주차면수가 45면인 소규모 주차장 시범 공영주차장 1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거주자

우선주차제도의 경우 시행초기인 2004년에 비해 신축 건물의 증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지역주민의 불편민원 등으로 인해 2015년 현재 주차구 획수가 1558면 감소되어 더욱 주차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며 수유3동의 경우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대기자수가 강북구 내에서 가장 많은 710여명으로 주차부족 문제해결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강북구에서는 수유3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물었다

“수유3동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 검토해달라”

◆강북구의회 5분 자유발언- 유인애 의원

유인애 의원은 제18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린 10일 “수유3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해달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유 의원은 “도시지역의 인구 밀집과 자동차 보유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주차부족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주차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인 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강북구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5년 3월 현재 총 7만4,959대(관용차량 273대, 자가용 6만9,885대, 영업용 차량 4,801대)이며, 강북구의 주차가능 주차면수 현황은 대략 총 8만3,700여 면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주차가능 주차면수 현황은 넉넉한 상황이지만 주차난 문제해결이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유3동 지역은 민원이 잦은 강북구청의 직할동이며 수유역이 위치한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역세권 지역으로 다른 지역보다 주차구역 확보가 넉넉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이 강북구 관내 공영주차장 총 33개소(공단직영: 주



차장 25개소,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7개소) 중 주차면수가 45면인 소규모 주차장 시범 공영주차장 1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거주자 우선주차제도의 경우 시행초기인 2004년에 비해 신축 건물의 증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지역주민의 불편민원 등으로 인해 2015년 현재 주차구획수가 1,558면 감소되어 더욱 주차부족 문제를 심화시

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수유3동의 경우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대기자수가 강북구 내에서 가장 많은 710여명으로 주차부족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유인애 의원은 “수유3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달라”며 “열악한 강북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해 볼 때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사업진행이 이루어져야 겠지만 주차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필요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유3동 지역에 공영주차장 신설은 장기적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